

## 용담댐, 대청댐을 견학하고.

이 하 영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2학년)

한국 수자원학회의 후원으로 전국 대학생 토목공학도의 댐견학이 6월 27일 있었다. 27일 아침 9시 20분에 잠실에 위치한 한국 수자원학회 앞에서 집결하여 9시 30분에 견학 목적지인 용담댐과 대청댐을 견학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고속도로를 타고 두세시간을 달린후 옥산휴게소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하였다. 우리들의 처음 견학지는 용담댐이었다.

점심시간인 1시가 다 되어서야 전라도에 위치한 용담댐에 도착하였다. 모두 차에서 내린후 바로 용담댐 관계자들께서 우리들을 인솔하여 홍보관으로 들어갔다. 견학생 모두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자분이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는 견학생의 얼굴 표정이 진지하게 변하여 열심히 설명을 적기도 하고 사진 촬영도 하곤 했다. 용담댐은 현재 건설중인 댐으로 국내에서 5번째로 많은 저수용량을 가진 댐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저수용량이 큰 댐은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등이 있다고 한다. 이런 다목적 댐은 주변도시에 수돗물을 공급할 뿐만아니라,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얻곤한다. 용담댐도 마찬가지로 다목적댐으로 금강하류지역에 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홍수피해방지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댐이다. 용담댐은 2021년까지 백만톤의 물을 공급할 예정이라 한다. 이렇게 큰댐을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건설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용담댐을 건설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에서 3조 4천억원의 자산을 투입하여 건설하게 된다고 한다. 이중 70%~80%가 침수지역 피해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으로 쓰이게 되고 약 2천 9백억원인 20%~30%의 자금만이 댐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이다.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놀랐는데도 불구하고 더 놀란 것은 전체자금의 70%~80%가 보상금이라는 것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용담댐은 1999년에 완공예정이며 현재 공사현황은 40%~50% 정도가 완공되었다고 한다. 댐의 크기는 높이 70m, 길이 498m의 댐이다. 모든 설명을 들은후 건설현장에 있는 전망대로 장소를 이동하였다. 댐 공사현장을 한 눈에 볼 수 있었고, 댐공사현장 위쪽에서는 가물막이공사를 하여 댐을 건설하는데 용이하게 하였다. 전망대에서 구경한후 상수도관을 공사하는 곳으로 장소를 다시 옮겼다. 상수도관은 산 안에 동굴을 판후 콘크리트를 배합하여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흥미가 있었던 것은 여학생들은 견학을 못하게 하였다. 그 이유는 마치 뱃사람이 어선에 여자를 태우지 않는것과 같다. 용담댐에서의 모든 견학을 마친후 운일암, 반일암 이라는 곳에서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3시가 되어서야 점심식사를 할 수가 있었다. 운일암, 반일암이라는 곳을 간다기에 처음에는 바위 이름인줄 알았는데 해가 반나절만 뜨고 지고 한다는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물론 전설이지만 말이다.

이곳에서 잠간의 휴식을 취하고 2차 목적지인 대청댐으로 향하였다. 충청도에 위치한 대청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였다. 예정보다 한참 늦은 시간이었다. 먼저 홍보실에서 대청댐 건설모습을 담은 짧은 홍보영화를 본후 대청댐 발전소로 자리를 옮긴후 발전소 운영원리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듣고, 발전소 내부에 있는 발전기의 모습을 본후 중앙제어센터에서 전기를 관리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 주셨었다.

대청댐에서는 예정된 계획대로 견학을 하지 못하게 서운하였지만 그래도 댐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었다. 오후 7시가 되어서야 대청댐을 출발하여 집으로 향할 수가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안에서 한 학생이 견학에 대한 느낌과 학교소개를 하자는 제의를 하여 각 학교를 대표하는 한 학생씩 견학에 대한 느낌과 그외의 모든 것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하며 집으로 올 수 있

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였다. 서울에 도착한 시간은 밤하늘에서 별을 볼 수 있는 9경이었다. 짧은 하루 동안 두곳의 견학지를 방문하여 댐에 대한 문외한인 나의 지식을 조금이나마 넓였다는 것에 만족하며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집으로 옮겼다. ●



괴로울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다. 고락이 서로 접하고 교대하는 가운데 심신은 연마되어 간다. 행복과 평화의 경지는 고락이 끊임없이 서로 접하는 경험에서 얻은 것이라야 생명이 긴 법이다. 아직 깊은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깊은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 고통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성과는 기초 없이 세운 집과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인생은 고락이 서로 접해 흐르는 물 속에 떠내려가는 한 조각의 나무는 아니다. 고락이 교대하여 흘러가는 동안에 숭고한 정신을 얻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채근담』)

